"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욥 38:33a)

-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장을 중심으로[1]-

왕대일*

전통적으로 유대-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의 정당성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창 1:1-2:3; 2:4-25)에서 찾는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신앙의 들머리에 창세기를 둠으로 구약 사상의 각론을 창조 신앙의 총론에서 읽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상사가 반드시 창세기의 창조 신앙을 고스란히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승사적으로 보면 구약성서 안에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창조 이야기가 있다. 예컨대 시편 74:12-17이 그런 경우다. 시편 74:12-17은 존 레벤슨(Jon Levenson)이 지적했듯이,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와는 다르게 "혼돈과의 싸움"(Chaoskampf)이라는 관점에서 증언하고 있다.[2] 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 첫 번째 기사나 두 번째 기사 모두 창조 사역을 하나님 홀로 이루신 역사(役事)로 전하고 있다.[3]

---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글은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의 2012년 가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2012년 9월 20일)했던 강연을 수정한 원고이다.

2) Jon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7-10.

3) 시편 74:12-17은 이사야 51:9-11 등에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가 전했던 "혼돈과의 싸움"(Chaoskampf)이라는 주제가 반영되어 있다. 레벤손에 따르면 창조 사역에 동반되었다는 옛 "싸움 신화"(combat myth)가 제거된 창세기 1:1-2:3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런 차이가 일깨워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구약성서의 증언을 간(間) 본문적으로 살필 때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창조 전승의 여정은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증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동적으로만 수용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욥기 38:1-42:6 (이하, 욥기 38-41)도 그런 텍스트에 속한다. 거기에는 구약의 지혜 전승이 묻고자 했던 창조 신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왜 욥기 38-41장은 창세기의 증언과는 다른 내용의 창조 이야기를 욥기의 드라마 속에 펼치고 있는 것일까?

1. 지혜자의 도전, 하나님을 위한 변증

욥기 38-41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4] 욥기 38-41장은 야웨 하나님의 연설이다. 욥의 긴 항변에, 욥의

의 창조 기사는 고대 서아시아의 창조 전승이 유일신 신앙의 빛에서 비판적으로 수렴된 결과다. 시편 104편은 그 과도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된다.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49, 53-65, 68.

4) 욥기에 관한 해석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도 욥기 38-41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초청과 욥의 깨달음』 (용인: 킹덤북스, 2012), 221-264; Kim Chang Joo, "The Meaning of Job's Suffering and the Divine Speeches in Job 38-4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3 (한국기독교학회, 2009), 5-19;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5-123, 127-153, 179-216; 하경택, "패러다임 충돌현상으로서 욥기의 논쟁연구," 「宗敎硏究」 47 (한국종교학회, 2007), 343-374; 이영미, "역사청산- 왜, 무엇을, 어떻게? 민중신학적 구약신학을 위한 서론적 탐구-욥기의 하나님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31 (2005), 29-56;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욥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252-289; Abigail Pelham,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The-World-As-It-Ought-and-Ought-Not-To-Be* (Leiden/Boston: Brill, 2012); William P. Brown,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The Bible, Science, and the Ecology of Wond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0), 115-140; James L. Crenshaw, "When Form and Content Clash: The Theology of Job 38:1-40:5," Richard J. Clifford and John J. Collins, eds., *Creation in the*

친구들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해묵은 변증에,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에서"(민 핫세아라 מִן הַסְּעָרָה) 나타나 입을 여시는 순간이다. 욥기 38-41장에서 욥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는 일종의 천둥소리다. 하나님이 길게, 거칠게(?) 욥에게 소리치시고(욥 38:1-40:2; 40:6-41:34), 욥이 거기에 짤막하게, 숨죽인 채 대꾸하는(욥 40:3-5; 42:1-6) 형식의 글이다. 윌리엄 브라운(Willam P. Brown)의 말대로 하면 욥기 38-41장은 "폭풍 속에 살펴 본 창조 세계"(whirlwind tour of creation)이다.[5]

글의 형식에서 볼 때 성문서는 하나님·사람·세상에 관해서 시인이나 현자가 털어놓은 가르침, 고백, 격언, 훈계,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잠언, 메길로트(룻, 애가, 아가, 에스더, 전도서)가 그러하다. 역대기 등에 예언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초점이 특정 인물의 업적 등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에, 그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러티브를 선도하는 토라나 예언서와는 그 형식에서 크게 다르다. 이처럼 성문서의 말글에는, 지혜 문학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욥기 38-41장은 욥에게 집중적으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구약의 지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도하고 있는 말씀은 욥기 38-41장뿐이다. 마치 예언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처럼 욥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연설이 욥기 38-41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왜 지혜 문학 가운데서 유독 욥기 38-41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욥기 38-41장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연설은 성문서의 전통에서 볼 때는 가히 이질적(?)이다. 그 낯선 모습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Biblical Traditions, The Catholic Biblical Monograph Series 24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2), 70-84.

5) Brown,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125-131.

그 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38:1).

"그 때에 야웨께서 대답하셨다.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봐야안-야웨 에트-이욥 민 핫세아라 ויען־יהוה את־איוב מן הסער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은 38:1이 그 이전에 나온 욥의 말(질문)에 대꾸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욥기 3-31장에서 욥이 한 말을 질문으로 삼을 때 38:1 이하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연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 욥의 말은, 욥이 그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논쟁 속에서 털어놓았던 욥의 심정은, 많은 욥기 주석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의인(욥)을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탄원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정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항변이었다. 하나님이야말로 악인을 태만하게 다루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그러니까 야웨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은 욥기 3-31장에 수록된 지혜 논쟁에 대한 본문상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응답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즉 "폭풍우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의 계시가 "폭풍우"(세아라) 속에서 선포되고 있다.[6]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성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시내 산이나 시온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회막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잿더미"(욥 3:8) 위에 앉아 있는 욥에게,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욥 30:29) 되어야 했던 욥에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있는 욥에게,

6)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욥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그것을 "폭풍우 신"(storm-god)이라고 보기도 하고 "용사이신 하나님"(divine warrior) 이미지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안근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본문 맥락에서, 세아라는 소극적으로는 욥의 무지를 깨우치시는 견책의 바람이요, 적극적으로는 욥을 높이 올려 창조 세계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지혜의 바람이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세아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왕하 2:11)는 기사도 이런 설명에 도움을 준다.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183.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7]

욥기 38:1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은 포로기의 예언자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찾으신 하나님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구름"을 동반하면서 찾아오셨다. 욥기 38:1이나 에스겔 1장이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현현을 전하고 있다. 두 본문에서 모두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연설로 이어진다. 두 본문 모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실존적 위기(고통)나 역사적 시련(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에 그 방식이 급하고 예사롭지 않은 형식을 띤다. 그런 긴박한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을 담은 형식이 바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욥기 38:1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현현은 에스겔 1장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현현과 똑같지 않다. 욥기 38:1에는 하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다. 천사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도 없으며, 날개달린 스랍들도 없고, 하나님의 현현에 동반된 언어적 수사(修辭)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다고만 전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더 침묵하고만 있다가는 하나님의 실체가 크게 훼손되고 말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기 38-41장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이해하던 시각(프롤로그의 욥)에, 하나님을 기계적(인과응보)으로만 설명하는 시각(욥의 세 친구들)에,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욥의 항변)에, 하나님을 멀리 계시기만 하는 분으로 외치는

7) 욥기의 사회역사적 배경이나 그 저술 연대를 추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학적으로 보면 욥기가 주전 1000년경의 『바빌론 신정론』(*The Babylonian Theodicy*)이나 그보다 앞선 Ludlul bēl nēmeqi(『지혜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ANET*, 434-437)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욥기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욥의 정황은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정황과 그 유형에서 흡사하다. 포로기의 예언자 에스겔의 글(겔 14:14, 20)에 욥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각(욥기 28장)에 서둘러(!) 나타나셔서 자기를 방어(defense)하시는 모양새를 띤다.[8] 즉, 욥기 38-41장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시는 아폴로지(apologia)이다.[9] 하나님이 우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관해 쏟아지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변증하시는 장면이다. 그러기에 욥기 38-41장은 문맥상 욥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세이면서도 고통당하는 욥에게 건네주는 하나님의 위로란 단 한 마디도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디펜스(defense)하는 일이 더 바쁘기(?) 때문이다. 이런 디펜스는 욥기 38-41장의 지혜 전승이 정통 신앙과는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욥기 38-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연설은 성문서의 문예적 전통에서는 낯선 방식이다. 욥기 38-41장은 좁게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탄원과 물음에 대한 지혜 전승적인 처방이고 넓게는 창조 신앙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정통 교리에 반기를 든 지혜자의 변혁이다.

2. 지혜자의 수사학, 선한 욥에서 무지(無知)한 욥으로

욥기 38-41장은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데 그 응답은 두 겹(38:1-40:2와 40:6-41:34)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반어법이다. 욥기 38-41장에 수록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 걸기는 시종일관 질문 형식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욥이 창조 세계의 구조를 아는지, 욥이 창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캐묻고 있다. 아니,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구경시키면서 우주의 탄생(38:4-21),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38:22-38), 동물 왕국

8) Norman C. Habel, "In Defense of God the Sage," Leo G. Perdue and W. Clark Gilpin, eds., *The Voice from the Whirlwind, Interpreteting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2), 21-38.

9) Norman C. Habel, "In defense of God the Sage," 33.

(38:39-39:30; 40:15-41:34)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조목조목 따지는 일종의 교육적인 논쟁이다. 욥기 38-41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 교육을 위한 수학여행에 초대된 학생과 같다."[10] 하나님은 욥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욥에게 땅, 바다, 빛과 어둠, 홍수, 얼음, 서리, 별자리, 번개 등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느냐고 쉴 새 없이 캐묻는다. 욥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추궁은 한 마디로 다음 질문 속에 압축되어 있다.

>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38:33)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חקות שמים 훅코트 샤마임)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에차 עצה, 38:2; 개역개정에서는 "생각," 새번역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미쉬파트 משפט, 40:8; 새번역에서는 "판결")로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현상의 본질을 묻고 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추궁에 전혀 대답할 수가 없다. 아니, 욥에게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나 법칙"에 대해서는 답변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자와 까마귀, 산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야생말, 매와 독수리가 차례대로 등장하는 퍼레이드를 펼치신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욥에게 그 짐승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아느냐고 따진다. 이 퍼레이드는 '세상이 뒤집혀져 있다'고, '세상은 혼란(chaos) 그 자체다'라고 따졌던 욥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언어가 된다.[11] 그런데 그 방식이 상당히 역설적이다. 동물들의 퍼레이드의 서두와 마지막에 인클루지오(inclusio) 형식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사가 언뜻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10)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185.
11) Crenshaw, "When Form and Content Clash," 76.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 줄 수 있느냐?(38:39)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39:30).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야생 왕국"(God's wild kingdom)이다.[12] 사자나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짐승의 살(肉)을 자기 먹이로 삼아야 한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들을 죽여야 한다. 이쪽에서는 살림인데, 그 살림이 저쪽에서는 죽음이 된다. 그 역설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마련"(38:41b)하시고 있다! 창조 세상에 버젓이 지속되는 이런 역설을 하나님은 동물들의 퍼레이드 형식으로 욥에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무슨 소리인가? 사람(욥)이 보기에 악했던 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존의 고통이 카오스인 것은 맞지만, 카오스가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연출 앞에서 욥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만다! 욥의 입에서 나오는 짤막한 답변(욥 40:3-5),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는 그런 욥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한 동물들의 퍼레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퍼레이드의 2부 행사가 남아 있다. 그 2부 행사가 시작되기 전 막간(40:1-14)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재차 따진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 하려느냐?"(40:8a). 이 추궁은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나 "아직도 너는 내 공의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려느냐?"(하아프 타페르 미쉬파티 **האף תפר משפטי**)로도 옮길 수 있다. 이 질문은 욥이 우기던 세상질서(세상은 이러해야 한다)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사(세상은 이러하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12) Brwon,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129.

있음을 암시한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사를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재차 동물들의 퍼레이드 제2부를 진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등장이다[40:15-24; 41:1-34(H 40:25-41:26)].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40:15).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41:1)

네가 창으로 그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41:7-8).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41:14-15).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통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41:19-20).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41:33).

구약 성경 안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텍스트는 여기 말고 없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도 이런 묘사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욥기 41장은 한 장 전체에 걸쳐 리워야단의 생김새에 관하여 자세하게 스케치한다. 구약 어디에도 이런 본문은 없다. 구약 어디에 리워야단의 혀, 코, 가죽, 다리, 턱, 등비늘, 입, 목, 심장, 뱃가죽 등을 세밀하게 극찬(?)하는 구절이 있는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악의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신화 속의 주인공이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혼돈(chaos) 그 자체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연설에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파괴적인 세력(혼돈)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통제 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다.[13]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는 창조 세계의 무대에서는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이, 선한 것과 악한 것 등이 다 주어진 리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심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 혼란스럽게 엉클어지지 않는다. 욥의 처지가 망가져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망가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무찔렀던 신을 찬양하였던 고대 서아시아의 신화와는 다르게, 리워야단을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기르고 데리고 노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노리개라는 것이다! 그런 당찬 하나님 앞에서 인간(!) 욥은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린다(욥 42:1-6, 특히 6절). 그저 "입을 닫은 채"(엠므아스, אמאס; 비교, 렘 31:37; 33:26), 입술을 꽉 다문 채,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마음을 바꿔먹고"(니함티, נחמתי; 비교, 창 6:7; 삼상 15:11; 렘 4:28) 있을 뿐이다. 무엇을 뜻하는가? 창조 세계의 무대를 이끄는 주인공이 더는 인간이 아니라는 진리가 욥에게 새겨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은 더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의 관심사를 욥의 선함에서 욥의 무지함으로 바꿔

13) Crenshaw, "When Form and Content Clash," 76; Habel, "In Defense of God the Sage," 35.

놓았던 것이다.[14]

3. 지혜자의 연출, 조롱당하는 인간· 추켜 주는 리워야단

앞에서 살핀 리워야단 이야기는 욥기의 창조 신앙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창조 사상에 크게 반기를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1-2:3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까지 말씀하셨다(창 1:28). 사람을 향한 이런 기대는 시편 8편 기자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4-5).

이런 창조 전승이 욥기 38-41장에 들어서면서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다. 욥기 38-41장에서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고 있다. 들나귀가 성읍에서 지껄이는 사람소리를 비웃고(39:7), 들소가 사람의 손을 뿌리치며(39:9-12), 어리석어 보이는 타조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39:18).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욥기 38-41장에서 사람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암시적이라는 사실이다.

> 하늘의 물독을 누가 기울여서 비를 내리게 하는가,
> 티끌이 진흙덩이로 굳어지고
> 진흙덩이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38:37b-38, 사역)

욥기 38:37b-38은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기사가 증언하였던 사람

14) Crenshaw, "When Form and Content Clash," 79-80.

창조 이야기(창 2:7)를 떠올리게 한다.[15] 그러나 암시만 할 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욥기의 창조 신앙에서 사람은 결코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다. 사람은 단지 암묵적으로만 거론될 뿐이다. 아니, 욥기 38-4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세상의 왕자는 사람이 아니라 리워야단이다!

>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 땅에 고꾸라진다.
>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41:9-11).[16]

이 세상에는 리워야단과 맞설 사람이 없다! 아, 욥기 41장의 파노라마에서 인간은 리워야단에게 한참 못 미친다. 물론 하나님의 연설에 소개된 리워야단 예찬(?)은 단편적이다. 그렇지만 그 단편적인 파노라마에 반영된 창조 신앙은 이스라엘의 정통사상에 크게 도전하고 있다. 이 점이 우리 시선을 끈다. 창세기의 창조 세계에서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리워야단은 기껏 "큰 바다 짐승"(핫탄니님 하게돌림 התנינם הגדלים)이다(1:21). 그마저도 두 번째

15) Pelham, *Contested Creations*, 86, 각주 55.

16) 41:11(H 41:3)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개역),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개역개정), "아가리에서 내뿜는 횃불, 튕겨 나오는 불꽃을 보아라"(공동번역).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그럴 사람이 없다"(새번역). "Who has a claim against me that I must pay? Everything under heaven belongs to me"(NIV).
욥기 41:11(H 41:3)의 히브리어 본문(מי הקדימני ואשלם תחת כל־השמים לי־הוא)은 "Who hath brought before Me and I repay? Under the whole heavens it [is] mine"으로 읽을 수 있다.

창조 기사(2:4-25)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욥기 38-4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세계를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욥기 38-41장의 파노라마 속에 인간이 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틀리지 않는 지적이다. 잠깐이라도 욥기의 파노라마에 인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껏 교만한 자, 악한 자일뿐이다.

>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내고,
>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 (40:11-13; 비교, 38:13-15).

하나님의 연설에서 인간은 세상 중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입에서 거론되는 인간은 단지 "교만한 자들"(콜-게에 כל־גאה), "악한 자들"(레샤임 רשעים) 일뿐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을 두 부류(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는 일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다. 사람을 그 됨됨이에 따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일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의 관심사일 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연설을 듣기 이전까지 욥기 이야기에서 욥은 욥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대로 각각 자기만 의롭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의로운 자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의 연설에서는 아예 빠지고 없다.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사람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다. 선한 자가 있어야만 세상은 살 맛 나는 곳이라고 우기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욥기 38-41장이 묘사하는 창조 세계에서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욥기 38-41장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악한 자만 거론될 뿐이다. 그런 파노라마를 지켜보다가 욥이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욥 40:5). 욥이 자기 눈으로 바라본 파노라마는 그가 이제껏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우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던 것이다. 어찌 욥만 그렇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자연의 웅장한 광경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을 것이다. '우리는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 38-41장이 주장하는 창조 세계의 광경은 창세기의 창조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사를 인간 중심적이거나 인과응보로 판단했던 지혜 사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욥기 38-41장은 웅장한 대자연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테러(terror)에 대해서 아무 조정자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을 한껏 조롱하고 있다. 욥기 38-41장이 털어놓는 창조 세계의 신비는 인간을 창조 세계의 정점에 두었던 전통 신앙의 한계를 지적한다. 욥기 38-41장이 인간 중심적인 세상사의 허구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창조 사상(창 1:1-2:3; 2:4-25)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잠언이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에 도전하고 있다. 세상은 결코 인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지혜자의 처방, 하나님의 정원과 동물들의 퍼레이드

욥기 38-41장에 등장하는 창조 세계의 멤버들은 모두 인간 세상 울타리 밖에 존재한다. 동물들의 경우 사람에게 길들여지거나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다. 사자(38:39)와 까마귀(38:41), 산 염소(39:1)와 암사슴(39:1), 들나귀(39:5)와 들소(39:9), 타조(39:13)와 야생말(39:19), 매(39:26)와 독수리(39:27) 등이 그 주역이다. 거기에 베헤못(40장)과 리워야단(41장)이 가세하여 동물 퍼레이드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장면을 일종의 카탈로그라고 보기도 한다.[17] 동물들의 목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욥기 38-41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연설은 우주의 골격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을 거쳐 땅으로, 다시 강/바다로 내려오는 순서로 수십 개의 아이템(items)을 일렬로 소개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38:4-38; 38:39-39:30; 40:15-41:26).[18] 예컨대 여기에 소개된 다섯 쌍의 짐승들은 그 생존 능력, 번식 능력, 야성(野性), 빠르기와 힘, 식성 등에서 같은 부류로 구분되어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들이 모두 하나님의 세상을 누비는 고유 멤버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 퍼레이드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카탈로그에 사람은 소개되지 않는다!

인간 문명은 야생짐승을 집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사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은 본래부터 가축이 아니었다. 욥기 38-41장에 소개된 동물 왕국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는 자유로운 짐승 세상을 보여준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자기 농사를 위해서 부리려고 해도 그 짐승들은 아예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17) 욥기 38-41장을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문헌과 비교하면서 그 성격이 동물들의 목록이나 카탈로그와 흡사하다는 시각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여기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Yair Hoffman, *A Blemished Perfection: The Book of Job in Context*, JSOTSup 2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84-114를 보라.

18) Hoffman, *A Blemished Perfection*, 103.

제 멋대로(?) 살아간다. 예컨대 사람들이 아무리 들소를 잡아다가 외양간에 매어 두려고 해도(39:9), 들소는 결코 거기에 끌려 넘어가지 않는다.

욥기 38-41장은 창조 세계의 멤버들을 야생 동물들로 소개한다. 하나님의 연설은 그 멤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게 한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다 창조 세계의 리듬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그것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세계의 가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욥기 38-41장이 묘사하는 창조 세계의 진실은 무엇인가? 욥기 38-41장은 창세기의 창조 신앙과는 달리, 동물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다. 욥기 38-41장이 보여주는 퍼레이드의 주인공들이 들짐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텍스트가 개진하는 창조 사상을 동물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레벤손의 논평은 이 점에서 우리 논의에 도움이 된다.

> 그 장황한 이야기의 요지는 창조 세계란 인간이 추정하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곳이라는 점이다. 창조 세계가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까닭이다. 인류는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디자인 되지 않은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디자이너와 주인에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주장을 (정당한 요구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런 주장을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것이며, 거대한 리워야단처럼, 하나님 홀로 길들였던 그 짐승처럼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경험은 그런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19]

19)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155-156.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그것이 수수께끼같이 보일지라도-자기들을 맞춰야 한다. 욥기 38-41장은 냉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 중심주의(theocentrism)를 주창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창조 사상을 피력한다. 욥기 38-41장이 보여준 야생 동물들의 퍼레이드는 해괴한 짐승들까지도 키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며 데리고 노는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즉,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나님의 정원이야말로 들짐승들에게는 너무나 공평한(!) 주거지(habitation)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동물과 식물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 내가 들판을 들나귀의 집으로 삼았다.
> 황무지를 그가 살 곳으로 주었다.
> .....
> 산은 들나귀가 풀을 뜯는 초장이고
> 풀밭은 그가 찾는 먹이다(사역, 39:6, 8).

풀밭은 들나귀의 먹이다(예투르 하림 미르에후 יתור הרים מרעהו)! 들나귀는 들판과 황무지에 살면서 산과 풀밭을 찾아서 먹이를 뜯는다. 그런데 여기 초장(미르에)이란 단어가 "풀을 뜯어 먹다," "돌보다," "사귀다," "동료로 삼다"라는 라아(רעה)에서 온 말인 것은 예사롭지 않다. 히브리어 "라아"가 이 구절에서는 "먹이"라고 사용되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동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욥에게는 "친구"(메레아, מרע)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6:14)

산과 들과 풀밭은, 자연은, 생태환경은, 동물들에게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다. 식물과 동물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지닌다. 욥기 38-41장이 제시하는 이 같은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 안에 거주하는 식구들

을 위한 집(오이코스)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생태학(ecology)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oikos, 집)를 돌보는 이치를 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창조 세계)의 식구들은 모두 본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태생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다. 아비가일 펠함(Abigail Pelham)의 말대로 하면, 자연은 홀로 살아가는 들짐승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된다.[20] 그러하기에 자연 속에서 짐승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니, 결코 외롭지 않다.

5. 맺음말, 지혜자의 깨달음과 조지어천(照之於天)의 지혜

욥기 38-41장은 인간 중심적 창조 이야기에 대하여 쐐기를 박는다. 창세기 창조 신앙(창 1:28)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비록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기사가 농경 산업의 시작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창 3:17-19), 거기에는 여전히 세상을 인간을 위한 삶의 장(場)으로 헤아린 경험이 깔려 있다. 그런 창조 사상에 대해서 욥기 38-41장은 반기를 든다. 사람은 결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의 말대로, 창조 세계의 불가사의를 목도하면서 깨달은 욥의 각성-창조 세계의 중심은 인간세상이 아니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끄는 초대장이 된다.[21]

---

20) Pelham, *Contested Creations*, 79.

21) Richard J. Clifford, *Creation Account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n the Bible, CBQMS 26*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4), 197.

이런 지평에서 욥기 38-41장은 신정론(theodicy) 문제를 인정론(anthropodicy) 문제로 수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22]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를 따졌던 욥의 문제 제기에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지혜자의 방식이 거기에 담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 신앙에 대한 욥기 38-41장의 도전은 오늘날 문젯거리로 대두된 인간 중심적 창조 사상에 대한 회의가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미 제기되었다는 소리가 된다. 욥기 38-41장은 창세기 1:1-2:3이 주도했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창조 사상에 대해서 "아니오"(No!)를 외친다. 이스라엘 종교의 제사장 신학이 정통이라고 내세웠던 창조 신학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창조 신앙을 놓고 제사장 신학과 지혜학파의 사상 사이에 인식론적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욥기 38-41장의 세계 안에 사람들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 사람들이 거론되더라도 기껏 악하고 교만한 자들뿐이라는 것은, 나아가 욥기 38-39장의 연설이 창조 세상의 주역으로 온갖 들짐승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이 욥기 40-41장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대자연의 두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계층 구조(hierarchy)로 보고 그 꼭짓점에 인간(남자)을 두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창조 신앙을 욥기 38-41장의 지혜 전승이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과연, 욥기 38-41장은 전통에 대한 혁신이다. 사람 중심의 창조 신앙을 시련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욥기 38-41장이 시도한 창조 세계(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같은 재해석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집(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야/살아야 하는가? 욥기 38-41장의 정신에 따른다면 인간들의 처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집(오이코스) 안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인간은

22)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263.

지구 공동체의 시민이다.[23] 인간은 자기들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청지기라는 자부심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코스모스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늘과 땅을 우리 손으로 망가지게 한 죄악을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진정한 생태 영성(eco-spirituality)을 구현할 수가 있다.

동양의 지혜는 이 점에서 욥기 38-41장의 현자와 조우할 수 있다. 욥기 38-41장이 혼돈스런 실존의 정황 속에서 창조 신앙의 지평을 새롭게 펼쳐가려고 한 것은 주전 4세기 중국 땅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살던 장자(주전 369-286)가 실천하려고 했던 도가적 삶에 관한 권면과 잘 어울린다. 출세지향적인 약육강식의 속도전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느리게 살고, 더불어 살고, 자유하며 사는 법을 일깨워준 노장의 경륜은 욥기 38-41장 속에 새겨진 개혁 사상을 해석하는 지렛대가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욥기 38-41장에 개진되었던 지혜자의 사색은, 장자의 말을 빌면, 조지어천(照之於天)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세상사에 관한 인간 중심적인 안목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사에 인간의 삶을 조율시키자는 욥기 38-41장의 처방은 사물의 이치를 고르게 보려면, "사물을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照之於天) 이치를 살아야 한다는 동양적 지혜와 맞닿는다.

>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옳음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옳음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크나큰 긍정이다…(方生方死 方死方

23) Tai-il Wang, "Redeeming the Creation: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on Reinhabiting the Earth," 제13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의 생태계와 생명-기후변화, 생명, 환경, 방사능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2012. 5. 8), 46-54.

生...因是因非　因非因是　是以聖人不由而照之於天　亦因是也…『장자』 제2편 齊物論 10)[24]

시시비비가 있을 때 홀로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조지어천 而照之於天)!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긍정이다(역인시야 亦因是也)! 그렇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려면 "밝음"이 있어야 한다(막약이명 莫若以明)!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편견을 버려야 한다. 밝음을 얻고, 편견을 버리려면 사물을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폭풍우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세상 앞에서 욥이 그만 "자기 손으로 제 입을 막고 말았다"는 것(욥 40:4)은, "자기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 있다"고 토로했다는 것(욥 42:5)은, 장자의 혜안을 빌면, 욥이 사물의 이치를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게 되면서"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밝음(明)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아닐까!

동양의 지혜는, 특히 도가(道家)는, 창조 질서에 조율하며 살아가는 시민을 가리켜 성인(聖人)이라고 불렀다.[25] 『도덕경』과 『장자』에서 성인은 삶의 시비를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사람이다. 자연의 이치를

---

24) 오강남 풀이, 『장자』 (서울: 현암사, 2011), 81. 『장자』 본문 번역은 오강남이 한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맨 끝 문장인 "역인시야"(亦因是也)를 오강남은 "있는 그대로를 그렇다 함이다"로 풀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긍정이다"로 읽었다.
오늘날 우리가 『장자』라고 부르는 책은 주후 4세기 노장 사상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북송(北宋)의 곽상(郭象, 주후 312년 사망)이 정리하고 주(注)를 달아 편집한 책이다. 『장자』 제2편의 제목은 "제물론"(齊物論)이다. 여기 "제"(齊)는 "고르게 하다"는 뜻이다. 이 제목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대략 첫째, 제물(齊物)에 대한 논(論), 즉 사물을 고르게 하는 것에 대한 이론, 둘째, 물론(物論)을 제(齊)함, 즉 사물과 이론들을 고르게 함, 셋째, 물(物)에 대한 논(論)을 제(齊)함, 즉 사물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고르게 함으로 새긴다. 여기에 인용한 제물론의 제10장에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오강남 풀이, 『장자』, 60).

25) 성인(聖人)은 『도덕경』이 이상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논어가 군자(君子)를 이상형으로 삼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도덕경』에서만 성인이라는 말은 대략 30번 정도 사용된다.

삶의 교재로 삼는 사람이다. 장자의 가르침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수렴할 때 욥기 38-41장 교훈은 '자연으로 돌아가자'거나 '자연친화적으로 살아가자'는 자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욥기 40-41장이 동물들만의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동물 중심적으로 살피자는 것이 아닌 것과 다르지 않다. 조지어천의 지혜는 자연의 이치를 삶의 교재로 삼는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실타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말이 된다.

욥기 38-41장의 권고는 조지어천의 지혜로 풀 수 있다. 장자가 말한 조지어천의 지혜는 기독교 신앙의 말로 바꾸면 결국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자는 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천이 지향하는 성화(聖化)의 영성은 생태 영성과 맞물린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세상(world)을 말씀(Word)으로 대하는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한다.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며 실천하는 경전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미"는, 이 시대의 성인(聖人)은, 하나님의 집을 쓸고 닦고 훔치는 청소부여야 한다. 에콜로지(ecology)는, 에코페미니스트의 말로 하면, 우리의 행성인 지구촌을 돌보는 청소(housekeeping)이다. 그 깨달음에 영성이 깃들고, 그런 영성에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윤리적 실천이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어>

욥기 38-41장, 창세기 1:1-2:3, 지혜 전승, 창조 신앙, 리워야단, 하나님 중심주의, 조지어천(照之於天), 생태 영성

<Key Words>

Job 38-41, Genesis 1:1-2:3, wisdom tradition, creation faith, Leviathan, theocentrism, "Understanding the World from the Heavenly Net", eco-spirituality

* 접수일 2013년 2월 21일, 수정일 2013년 2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8일

참고문헌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욥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초청과 욥의 깨달음』, 용인: 킹덤북스, 2012.

오강남 풀이, 『장자』, 서울: 현암사, 2011.

이영미, "역사청산-왜, 무엇을, 어떻게? 민중신학적 구약신학을 위한 서론적 탐구-욥기의 하나님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31 (2005), 29-56.

하경택, "패러다임 충돌현상으로서 욥기의 논쟁연구," 「宗教硏究」 47 (2007), 343-374.

Kim Chang Joo, "The Meaning of Job's Suffering and the Divine Speeches in Job 38-4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3 (2009), 5-19.

Tai-il Wang, "Redeeming the Creation: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on Reinhabiting the Earth," 제13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의 생태계와 생명- 기후변화, 생명, 환경, 방사능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2012. 5. 8, 46-54(영문), 115-140(우리말 번역).

Brown, William P.,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The Bible, Science, and the Ecology of Wond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0.

Clifford, Richard J., *Creation Account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n the Bible,* CBQMS 26, Washington D. 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4.

Crenshaw, James L., "When Form and Content Clash: The Theology of Job 38:1-40:5," Clifford, Richard J and Collins, John J., eds., *Creation in the Biblical Traditions. The Catholic Biblical Monograph Series 24,*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2, 70-84.

Habel, Norman C., "In Defense of God the Sage," Perdue, Leo G. and Gilpin, W. Clark, eds., *The Voice from the Whirlwind, Interpreteting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2, 21-38.

Hoffman, Yair, *A Blemished Perfection: The Book of Job in Context*, JSOTSup 2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Levenson, Jon D,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Pelham, Abigail,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The-World-As- It-Ought-and-Ought-Not-To-Be, Leiden/Boston: Brill, 2012.

<초록>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욥 38:33a)

-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장을 중심으로-

왕대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이 글은 욥기 38-41장에 수록된 창조 신앙의 신학적 진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신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창조 신앙의 전승사를 간본문적으로 추적할 때 욥기 38-41장에 담긴 지혜 전승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혜자의 반성이 담겨 있다. 그 반성을 담은 텍스트가 욥기 38-41장이다.

“폭풍 속에 관람하는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욥기 38-41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증언한다. 욥기의 지혜자는 자기 증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속에 거주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카탈로그 형식으로 제시한다. 욥기 38-41장이 펼치는 하나님의 연설 속에서 사람은 간헐적으로만 언급되고, 때로는 짐승에게 조롱받는 대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욥의 눈앞에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퍼레이드는 욥이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끄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셨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온 땅의 야생짐

승들을 각각에게 주신 성품대로 존재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이 증언 속에서 혼돈을 자아내는 괴물로 간주되었던 레비아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상징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하나님은 레비아단을 온갖 뛰어난 피조물들의 왕이 되도록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기 38-41장이 증언하는 창조 신앙은 창세기 1장의 증언에 맞서 사람은 더는 창조 세계의 크라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덕에 생존한다. 욥기 38-4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연설은 사람은 "조지어천"(照之於天)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도덕경의 지혜와도 좋은 해석학적 대화를 이룬다. 그 깨달음에서 성서적 생태영성의 신학적 기초가 비로소 수립될 수 있다.

<Abstract>

"Do you know the laws that govern the heavens?"(Job 38:33a): A Sapiential Reflection on the Creation Tradition in the Book of Job 38-41

Prof. T. I. 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theological voice of creation in Job 38-41, which is compared with Genesis 1 in its validity on the trajectory of creation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Scholarly interest in creation has led to the biblical wisdom tradition in Job 38-41 as one of sources that challenge to the place of human beings in the world of divine creation. The logic of the argument attributed to the divine speech in

Job 38-41, the "whirlwind tour of creation," shows the authentic testimony to the "littleness" of human beings in the created world as seen in its cosmogony, meterology, and zoology. Human beings in the speech of God can be referred to casually and even betrayed as an object of mockery. Yet, wild animals' parade before Job in marvelous formation reveals that God has created, sustained, and provided the world in a way that allows every living thing to exist according to its nature. Human beings implement no control over these creatures. Leviathan in Job 41, for example, which was seen as chaos monster, stands now as a symbol of creatures that God feeds it to be the king of all proud creatures. Cosmic tour of Job in Job 38-41 calls, therefore, attention to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no longer the crown of the universe as is seen in Genesis 1. Such an understanding comes to the awakening that all creatures on earth can live only by divine grace. This point can be pushed in the dialogue with Oriental wisdom, "Living by Understanding the World from the Heavenly Net," closely resembles with oracular speech in Job 38-41. Biblical eco-spirituality can expect a founding only after we are to be awakened at this point.